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85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
- 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서울시,
엄격한 조치 계획

ZOOM IN

-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 서울시, 대부업 금리제한 일몰 대비 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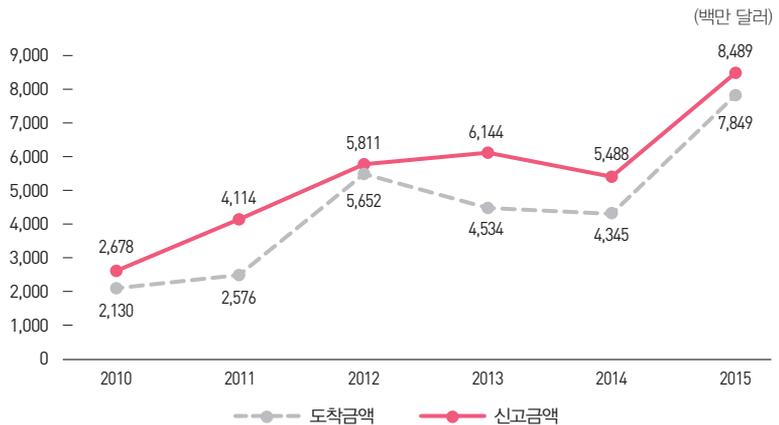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85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

서울시의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작년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서울시의 연간 FDI 신고액 중 최고 금액인 84억 8,900만 달러('15년 12월 27일 기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4년의 54억 8,800만 달러보다 54.7%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FDI 신고액(204.3억 달러)의 41.6%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의 투자금액이 79.9%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국내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중국투자가 2,138%(22배 ↑)나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M&A관련 금융·보험업 투자(247.3% ↑) 증가로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69.5% ↑)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38.9% ↓)했다. 〈목적별〉로는 M&A형 투자가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고(173.9% ↑), 공장이나 사업장 설립 등에 관한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는 소폭 상승(3.7% ↑)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금융·ICT·바이오·아레나 등 서울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산업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기존 발굴 기업과 신규 추가 발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서울시, 엄격한 조치 계획

- 카카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
-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입금으로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7배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사기 피해는 감소**

〈피해유형〉은 '계약취소, 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구제가 어려운 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ZOOM IN | 01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해 온 소상공인 13명이 서울시로부터 시장표창과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기업)를 운영하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날 표창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대기업 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소상공인들의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25명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가 공헌활동 내용과 활동의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로구 이병환씨 등 총 13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이병환씨는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광장인삼'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88년 광장시장 청우회를 직접 설립하여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송파구에서 제이엔씨인베스컨을 운영하는 김현철씨는 정기적으로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말벗, 간식제공 등 봉사활동을 해 왔고, 결연 어르신에 매월 물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상식에서 13명의 수상자들에게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을 수여하여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봉사가 홍보·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성명	점포명	성명	점포명
이병환	광장인삼(종로구)	이인라	단우정(은평구)
김현철	제이엔씨인베스컨(송파구)	심용진	안경나라 신길점(영등포구)
허권	금강보청기 금천센터(금천구)	이현구	네오피스 코리아(관악구)
조창호	서울산업정보교육원(금천구)	박찬조	알자나(중구)
이종헌	오리엔스(노원구)	이상익	웰빙(성북구)
남정애	노바의료기(동작구)	강나을	닥터오바이오(송파구)
박정열	칠일기획(영등포구)		

서울시, 대부업 금리제한 일몰 대비 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에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의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고, 서울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